

독일, 프랑스 공무국외출장 결과

- 독일, 프랑스 방송통신 협력 강화 -

- ◆ 기 간 : 2016. 5. 31.(화) ~ 6. 5.(일), 4박 6일
- ◆ 방문국가 : 독일(베를린), 프랑스(파리)

2016. 6.

목 차

I. 출장 개요 1

II. 세부 활동 2

1. 獨 연방미디어청 방문 2

2. 佛 시청각고등평의회(CSA) 방문 7

3. 佛 TV5Monde 방문 10

4. 佛 France24 방문 13

5. 佛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 방문 15

III. 보도자료 19

[별 첨]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공동선언’ 전문 24

I.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 독일 연방미디어청(die Medienanstalten) 방문
- 프랑스 시청각고등평의회(CSA),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 방문
- 프랑스 TV5Monde, France24 방문 및 방송사간 MoU 임석

2. 출장 국가 : 독일(베를린), 프랑스(파리)

3. 출장 기간 : '16. 5. 31.(화) - 6. 5.(일), 4박 6일

4. 출장자

구분	부서	직위(직급)	성명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성준
2	기획조정실	실장(고위공무원)	정종기
3	기획조정실	국제협력팀장(서기관)	전혜선
4	운영지원과	수행비서(행정사무관)	권영재
5	기획조정실	국제협력팀 주무관(방통주사)	박민규
6	기획조정실	국제협력팀 주무관(행정주사)	장좌영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문유진 연구원, 김지은 통역사(한-영) 수행

5. 주요 활동

- 獨 연방미디어청과 공영방송 수신료, 방송매체 간 규제 방향, 시청 점유율 조사방식 등 방송정책 동향 공유
- 佛 시청각고등평의회와 방송통신융합 신규서비스에 대한 규제 방향, 700MHz 주파수 대역의 활용 계획 등 방송정책을 공유하고 양국 방송사의 상대국 진출 확대 지원* 등을 위한 MoU 체결
* 韓 KBS - 佛 TV5Monde, 韓 YTN - 佛 France24 간 MoU 체결 임석
- 佛 정보자유국가위원회와 잊힐 권리, EU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평가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현안 공유

6. 선물수령 관련

- 선물 수령 여부 : O (정보자유국가위원회 기념 메달, 방문 기념)
- 선물 신고 여부 : X (미화 100\$ 이하의 단순 기념품)

II. 세부 활동

1. 독일 연방미디어청 방문

- 일시 /장소 : '16.6.1.(수) 14:00~16:00 / 독일 연방미디어청 회의실
- 면담자 : 토마스 랑헨리히(Thomas Langheinrich) 유럽담당 특임관
- 세부 면담내용

【양국 방송통신 정부조직 및 기능】

- (방통위) 한국에서는 방통위가 방송정책 전반을 담당하고 있으나 독일은 이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음. 독일의 방송관련 정부기관 구성에 대해 설명 바람
- (미디어청) 독일의 방송정책은 공영-민영 방송의 양대축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공영은 1946년, 민영은 1984년부터 관련 규정이 생김. 통일 후인 '91년부터는 서독지역의 방송시스템이 동독지역에 적용되었음
 - 방송통신 관련 법령은 연방 차원에서 규율 및 집행되나 이 과정에 각 주(州) 간 합의가 반영됨
 - 공영방송은 방송사 자체 감독조직, 민영방송은 각 주미디어청이 규제하고 있음
 - 각 주미디어청의 구조가 조금씩 다르나 공통적으로 방송정책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직의 일부를 외부전문가로 구성
 - 이 외에도 각 주미디어청은 민영 방송사 허가 및 방송 주파수 분배, 청소년 보호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통신은 연방통신청 소관임

【독일의 수신료 및 광고 정책】

- (미디어청) 공영방송의 재원 중 수신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각 세대의 수신기 보유량을 기준으로 수신료가 부과되었으나 현재는 주거지가 기준임
 - 독일에서도 공영방송의 광고 규제 관련 현안은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유지하자는 의견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 중임
 - 공영 방송은 중장년층, 민영 방송은 청년층이 주로 시청하며 이러한 차이 때문에 광고주는 공영방송 광고의 필요성을 주장
 - 광고 규제의 경우, 공영은 오후 8시까지 광고가 가능하며 민영은 EU의 규정에 따름. 프로그램과 광고는 내용 상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시간 당 광고비율이 제한
 - 독일 정부는 시장의 자율성을 장려하기 때문에 시간당 광고비율 규제를 점차 완화해가는 추세임

【뉴미디어 규제】

- (미디어청) VOD 등 뉴미디어에 대한 규제는 다른 국가와 동일하게 독일 정부도 겪고 있는 고민거리이며 특히 EU와의 조정도 필요한 문제임
 - 독일 정부는 매체에 관계없이 시청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각 미디어 분야를 일원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노력 중임
 - 유럽에서는 넷플릭스 등의 OTT서비스를 전통적 방송 분야와 동일하게 규제하려는 추세임
- (방통위) 연방미디어청이 언급한 PayTV의 범주에 케이블, IPTV 등이 포함되는지? IPTV 수신료는 얼마 정도인지?

- **(미디어청)** PayTV는 Sky TV 서비스와 같이 암호화가 되어 있어 접근이 제한된 유료위성 방송 서비스 등을 의미
 - 대표적인 IPTV서비스는 도이치텔레콤이 제공 중인데 현재 10유로 (약 13,000원) 정도의 요금을 받고 있음. 다만 이러한 서비스는 콘텐츠가 아닌 관련 설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 Pay TV의 개념에 해당되지는 않음. 이와 다르게 동일한 콘텐츠에 대하여 고화질 유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Pay TV에 해당하며 현재 성공적으로 정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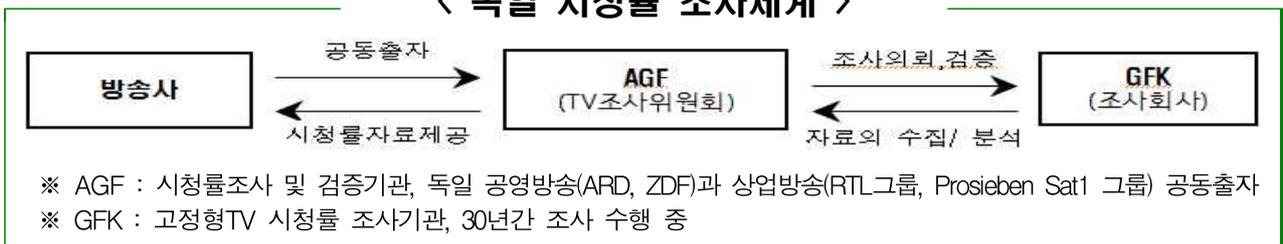
- **(방통위)** 한국에서는 OTT 등 기존의 방송 개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서비스가 시청자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방송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독일은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규제할 계획인지?

- **(미디어청)** 뉴미디어에 대한 규제는 유럽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현안이며 법과 기술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음
 - 예를 들어, 광고비율에 대한 제한을 실시간과 비실시간 미디어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청소년 보호 등은 어떠한 미디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규제임
 - 별도의 기술적 방안이 개발된다면 기존 및 뉴미디어를 아우르는 일원적인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
 - 미디어에 대한 일원적 규제, 특히 청소년 보호에 대해서는 EU차원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 중임

- **(방통위)** 근래에 기존 방송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유튜브 등 1인 방송 콘텐츠가 등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지 않는 상황임. 이러한 콘텐츠는 국경을 넘어 시청된다는 점에서 관련 규제의 마련은 국제적으로 공통된 고민일 것이며 지속적인 정보교류 및 협력이 필요한 부분임

- 그 일환으로 방통위는 연방미디어청과의 정기적 교류를 통해 뉴미디어 관련 정책현안을 협의하길 희망함
 - (미디어청) 말씀하셨듯이 뉴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며 정기적인 교류의 제안을 환영함
 - 한국은 세계적으로 미디어 관련 기술이 발전한 국가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먼저 겪어왔기 때문에 독일의 입장에서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리라 생각함
 - 1인 미디어 규제에 있어 독일에서는 관련 캠페인*을 실시하는 중이나 그 이상의 직접적인 규제는 어려운 상황임
 - * 청소년이 1인 미디어 제작 시 주의해야 할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 유튜브에 게시
 - (방통위) 한국에서는 고정형TV의 실시간 및 비실시간 콘텐츠에 대한 시청점유율 조사방식은 자리를 잡았으나, 인터넷 및 모바일 콘텐츠의 경우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 있음
 - 독일에서 2016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스마트폰 시청률 조사는 어떠한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 (미디어청) 독일에서는 각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기관을 통해 시청률 조사가 이루어지며, 동 조사 작업에 구글이 참여하도록 권유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음
 - 인터넷 영상 콘텐츠는 전 세계에서 시청되기 때문에 시청률 조사 범위 확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조사 모델을 개발 중임
- ※ 시청률 조사기관 : 고정형TV는 GfK, 데스크탑은 닐슨, 모바일은 '16년부터 조사예정

< 독일 시청률 조사체계 >



- 한 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이상 되는 경우 미디어 시장의 독점을 막기 위해 엄격히 규제함

<붙임 - 면담 및 방문 사진자료>



< 면담 장면 >



< 면담 장면 >



< 선물 증정 >



< 기념 사진 >

2. 프랑스 시청각고등평의회(CSA) 방문

- 일 시 : '16.6.2.(목) 11:00~12:00, 6.3.(금) 16:30~17:00
- 장 소 : 프랑스 시청각고등평의회(CSA) 사무실
- 면담자 : 올리비에 쉬라맥(Olivier Schrameck) 위원장
- 세부 면담내용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규제 및 정책협의체 제안】

- (CSA) 그간 프랑스의 방송통신 근황을 말씀드리겠음
 - 지난 4월 지상파 주파수를 700MHz로 전환했음. 수도권 지역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지역은 2019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임
 - 또한 비실시간 VOD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음. VOD, PayTV, OTT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이에 대한 규제 방안에 대해 고민 중임. 유튜브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하나의 방송 채널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 중임
 - 이런 것 대해 유럽차원에서 지침서를 마련했음. 주요 내용은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들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한다는 것과, 미성년자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임
- (KCC) 한국도 실시간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와 비실시간 VOD 서비스들에 대한 규제 방안에 대해 고민 중임. 물론 기존의 방송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새로이 등장하는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는지가 고민임
 - CSA에서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 됨. 이번에 체결할

MoU를 토대로 CSA와 KCC간에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서 위와 같은 공통된 과제에 대해 서로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양국의 방송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됨

- (CSA) 제안하신 실무 협의체 구성 제안에 동의하며 양국의 방송 시장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함

【UHD 관련】

- (CSA) 프랑스에서는 방송 주파수 할당을 무료로 하는 대신 매출액의 12.5%를 방송 제작물에 투자를 해야 함. 이런 정책은 지상파 방송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임.
 - 방송의 품질 향상 방안 중 하나는 UHD임. UHD의 발전을 위해서는 UHD 제작 기술뿐만 아니라 송출하는 기술도 필요하므로 방송사 및 제작사가 함께 노력해야 함
- (KCC) 한국의 상황을 간단하게만 말씀 드리면 지난번 면담 이후 지상파 UHD 방송 계획을 확정했음. 2017년 2월에 지상파 UHD 방송을 시작할 계획이고 2018년 2월에 한국의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서 경기를 UHD로 중계하는 것을 올림픽방송위원회(OBS)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임
 - 앞서 언급한 실무 협의체에서 양 기관간의 UHD 분야의 정책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한-불 방송교류협력 관련】

- (KCC) 이번 방통위와 CSA의 MoU 체결과 함께 프랑스의 TV5Monde와 한국의 KBS월드, France24와 YTN이 MOU 체결을 하는 등 방송사 간 상호 방송 교류 확대를 통해 양국 간의 이해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양국 방송사 간 방송프로

그램 교차편성 등 상호협력 지원 등을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o (CSA) 말씀하신대로 한국과 프랑스의 방송교류협력을 위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붙임 - 면담 및 방문 사진자료 >



< 환담 장면 >



< 면담 장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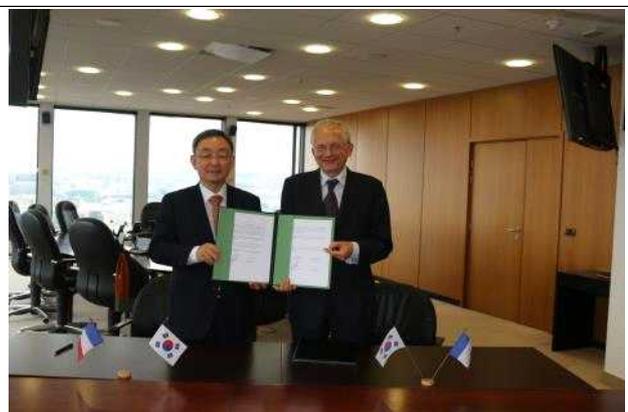
< 선물 증정 >



< 기념 사진 >



< MoU 체결식 >



< MoU 체결식 >

3. 프랑스 TV5Monde 방송사 방문

- 일 시 : '16.6.2.(목) 13:30~14:30, 6.3.(금) 13:30~14:00
- 장 소 : 프랑스 TV5Monde 본사
- 면담자 : 입스 비고(Yves Bigot) 사장
- 세부 면담내용
 - (TV5Monde)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오늘 KBS월드와 MOU를 체결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생각함. TV5Monde는 전 세계에 3억명의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음. 한국에서는 IPTV와 케이블 방송들을 통해 300만 가구가 저희 채널을 시청하고 있음. 오늘 KBS와의 MoU 체결을 통해 TV5Monde가 한국에서 좀 더 넓은 방송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함
 - (KBS) 말씀하신대로 TV5Monde는 전 세계 200개국의 약 3억명의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고 세계적인 채널로 인정받고 있음. KBS월드는 세계 100개국의 5,800만 가구의 시청자를 확보하는 등 한류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오늘 MOU 체결 이후 TV5Monde를 통해서 한국 문화가 유럽 및 아프리카에 전달되고 KBS월드 채널을 통해서 유럽 문화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함
 -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님께서 함께 하셔서 두 방송사의 협약이 좀 더 책임 있는 협약이 될 것으로 생각함
 - (방통위) TV5Monde는 전주국제영화제 국제영화제에 후원을 하는 등 한국의 문화 발전에 노력을 해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음. 감사

드림. 오늘의 MoU를 토대로 KBS월드와 TV5Monde간의 프로그램 교차편성 등의 방법으로 양국 문화의 생활상을 서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음. 앞으로 TV5Monde와 KBS의 큰 발전을 기원함

- 드라마, 다큐멘터리, 오락, 교양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들을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 제작인지? 외주 제작인지?
- o (TV5Monde) TV5Monde는 프랑스 등 다섯 개국의 방송사가 공동 주주로 설립하였음. 뉴스 등을 자체제작하고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다섯 개 방송사의 파트너 TV 방송국에서 프로그램들을 제공받아 사용 중임
- o (방통위)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KBS가 제작한 KBS월드의 프로그램도 TV5Monde가 받아서 내보낼 의향이 있으신지?
- o (TV5Monde) 불어 버전만 가능하다면 검토해 보겠음
- o (KBS) TV5Monde에서 한국의 프로그램 중 관심 분야를 알려주시면 협력해서 불어도 제공 가능함
- o (TV5Monde) 홍콩에도 TV5Monde 아시아 사무실이 있음. 그쪽에 지시해 KBS 프로그램을 검토해 보겠음
- o (방통위) 반대로 TV5Monde의 콘텐츠 중 KBS월드의 주요 시청자들이 관심 있어 할만한 콘텐츠를 KBS월드 채널로 방영하는 등 프로그램 교차편성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함

< 불임 - 면담 사진자료 >



< 스튜디오 방문 >



< 환담 장면 >



< MoU 체결 임석 >



< MoU 기념사진 >



< 단체 사진 >



< 선물 증정 >

4. 프랑스 France24 방송사 방문

- 일시 / 장소 : '16.6.2.(목) 15:00~16:00/ 프랑스 France24 본사
- 참석자 : 마리 크리스틴 사라고스(Marie-Christine Saragosse) 사장
- 면담내용
 - (방통위) France24가 CNN 등 다른 국가의 국제보도채널에 비해 늦게 출발했으나 눈부신 발전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음
 - (France24) 현재 주당 1백만 명 정도가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 (방통위) 이번 협력으로 France24의 콘텐츠가 YTN의 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넓은 지역에 방영되고 영향력을 넓힐 수 있으리라 기대함. YTN과 France24가 프로그램 및 인력, 정보 교류를 통해 서로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받길 바람
 - (France24) 실무적 협력의 일환으로 양사가 상대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우수한 작품을 선별하는 작업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함
 - (YTN) 이미 실무 단계에서 France24의 콘텐츠를 검토하는 중임. 양사가 실질적인 협력으로 좋은 결실을 맺길 바람
 - (방통위) 방통위는 양사의 교류협력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며, 오늘 이 자리에 동행한 것도 지원의 일환임. 양사도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람

<붙임 - 행사 참석 사진자료 >



< MoU 임석 >



< 환담 장면 >



< 선물 증정 >



< YTN 인터뷰 >

5.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 방문

- 일시 / 장소 : '16.6.3.(금) 10:00~11:30 / CNIL 회의실
- 면담자 : 이사벨 팔케 피에로틴(Isabelle Falque-Pierrotin) 위원장 등
- 세부 면담내용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제 공조】

- (CNIL) 두 가지 분야에 대해 대화를 진행하고자 함. 첫째는 디지털 분야에서 빠른 발전을 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정보교환이나 국제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두 번째는 디지털 분야에서의 규제, 좀 더 나아가서 경제 분야 사업자간의 모든 공동이익을 위해서 CSA나 금융기관 등 다양한 분야들에 규제기관과 협력하는 것에 관심이 있음
- (방통위) 한국은 미국보다는 유럽과 유사한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제적 협력에 대해 같은 생각임. 전 세계가 인터넷망으로 연결된 현재 상황에서는 각 나라마다의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국가 간 공조를 통해 일관된 방향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한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여러 법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존재하지만 일부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어 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이에 대해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내용과 국제적인 동향도 파악하고 있음. 이러한 점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함

- 특히 프랑스의 경우, 최근에 페이스북, 구글에 대해 잊힐 권리를 전 세계적으로 적용하라고 요구하는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어서 KCC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귀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기관 간 협력과 관련, 한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행정자치부와 KCC,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가 나누어서 맡고 있기 때문에 기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함
- o (CNIL) 말씀하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산업의 활성화 간의 적정성을 찾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임. 2018년 5월부터 EU 전체에 적용될 법의 주요 골자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산업의 활성화 간의 적정성을 찾는 것임. 진입 장벽은 완화하는 대신 전 매출액의 4%를 벌금을 내도록 하는 등 사후규제가 강화되어 있고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법령을 적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내 기구 설치가 의무화 됨
- 그리고 유럽 내 국가들의 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말씀하신 페이스북에 대한 위원회의 조치는 프랑스만의 의견이 아닌 전 유럽 국가들의 목소리이기도 함. 우리는 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시장의 목소리를 알려주는 것이며 이것은 사업자들에게 사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 o (방통위)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적인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함. 아시아에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CNIL과도 업무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통해 정보 교류가 되길 바람
- o (CNIL) 이번 7월 19일, 유럽위원회와 CNIL이 한국 KISA의 초대로 한국에서 한국 기업들과 세미나를 가질 예정임
- o (방통위) 페이스북, 구글 등 글로벌 기업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는 국가 간 공동적인 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특히, EU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프랑스의 CNIL과 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방통위 간의 정보교류 업무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됨. 그런 의미에서 7월에 KISA를 방문하시게 될 때 방통위의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하는 부서와 의견교환을 가지는 시간도 할애해 주시면 좋겠음

- (CNIL) 일정을 조정해서 방통위와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음

【앱 설치 시 개인정보 선택적 동의 관련】

- (방통위) 스마트폰 앱 설치 시 필수로 요구되는 개인정보와 선택적으로 요구되는 개인정보로 구분하여, 선택적으로 요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제공동의 하지 않더라도 앱을 사용 할수 있도록 입법을 하였음
- (CNIL)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 것을 중국에서도 시도하는 것으로 들었음
- (방통위) 우리 생활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이 있고, 그것이 한 나라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규제기관 간 공조를 취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적절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함

<붙임 - 행사 참석 사진자료 >



< 면담 장면 >



< 선물 교환 >



< 선물 교환 >



< 기념 사진 >

2016. 5. 31.(화)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16년 5월 31일(화)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의 혁신,
30년 의 성장

문의 : 기획조정실 국제협력팀 전해선 팀장 (☎2110-1331)
국제협력팀 박민규 주무관 (☎2110-1334)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독일·프랑스 방송통신 정책협력 강화 추진

- ‘한-불 수교 130주년’ 을 맞이한 상호 방송 교류 확대 추진 -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은 독일, 프랑스와의 방송통신 정책 협력, 방송 사업자 간 프로그램 교차편성 및 콘텐츠 교류 활성화를 위해 5월 31일(화) 출국한다.

최 위원장은 6월 1일(수) 독일 연방미디어청(die medienanstalten) 토마스 랑헨리히(Thomas Langheinrich) 특임관(장관급)과 면담을 갖고 방송 매체 간 규제 방향, 시청 점유율 산정 방법 등 방송통신 정책동향을 공유하고 양 기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6월 2일(목)부터 3일(금)까지 최 위원장은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이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기념, 프랑스를 방문하여 시청 각고등평의회(CSA) 올리비에 쉬라맥(Olivier Schrameck) 위원장과 양국 국민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방송교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협력 추진을 위해 양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어서 한국의 KBS(한국방송공사), YTN(와이티엔)과 함께 프랑스의 TV5Monde, France24를 연이어 방문하고 양국 방송사 간 방송프로그램 교차 편성 등 상호협력을 위한 MoU 체결에 동행할 계획이다.
끝.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16년 6월 3일(금)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문의 : 기획조정실 국제협력팀 전해선 팀장 (☎2110-1331)
국제협력팀 박민규 주무관 (☎2110-1334)

최성준 방통위원장, 독일, 프랑스 방송통신규제기관 및 프랑스 주요 방송사와 방송교류 협력 강화 나서

- 프랑스 시청각고등평의회와 방송통신 규제정책 공유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합의 -
- 한-불 방송사 간 방송프로그램 교차편성 등 방송교류 확대 지원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은 6월 1일(수)부터 6월 3일(금)까지, 독일과 프랑스의 방송통신 규제기관을 방문하여 양국의 방송통신 정책협력, 방송 사업자 간 프로그램 교차편성 및 콘텐츠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6월 1일(수) 최 위원장은 독일 연방미디어청(die medienanstalten) 토마스 랑헨리히(Thomas Langheinrich) 특임관과 면담을 갖고 공영방송을 위한 수신료 정책, 방송매체 간 규제 방향, 시청점유율 조사방식 등 방송통신 정책동향을 공유하고 양기관간 협력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최 위원장은 “넷플릭스, 아마존 등 시청자들의 요청에 의한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방송의 국경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므로 관련 신기술 규제에 대해 국가 간 정책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랑헨리히 특임관은 “한국은 방송통신 기술이 발전하여 많은 부분에 대해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으리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방통위와의 협력과 교류가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6월 2일(목) 최 위원장은 프랑스의 미디어 전반사항에 대한 규제 및 감독권을 행사하는 시청각고등평의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의 올리비에 쉬라멕(Olivier Schrameck) 위원장과 만나 OTT* 등 방송통신융합 신규서비스에 대한 규제 방향, 700MHz 주파수 대역의 활용 계획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쉬라멕 위원장은 “UHD(초고화질) 방송기술 및 콘텐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앞선 방송기술과 관련 정책 등에 대해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 OTT(Over The Top) :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한국은 17년 2월 지상파 UHD 방송을 시작할 계획이며, 양 기관 간 협력을 통해 UHD 방송기술 및 콘텐츠 분야의 교류 확대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양 기관장이 방송통신 시장 동향 및 규제 정책 등의 공유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조만간 양국 방송통신 규제기관 간 정책협력 채널이 가동될 전망이다.

이어 최 위원장은 YTN(와이티엔) 조준희 사장과 함께 프랑스의 뉴스 전문채널 France24를 방문하여, YTN과 France24 간 뉴스 및 실생활 정보 프로그램 교차편성, 재난·對(대) 테러 정보의 신속한 공유 등을 위한 MoU(업무협약) 체결에 동행하였다. 이는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이하여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해 마련된 ‘한-불 행동 계획’*(15.11월)의 후속조치로 양국 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방송콘텐츠 교류 및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 박근혜 대통령과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15년 11월 4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11개 분야의 양국 간 협력방안을 담은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

[참고] 한·불 방송교류 및 협력 방안

- ① 양국 방송사의 상대국 진출 확대 지원(방통위-프랑스 시청각고등평의회)
- ② 한류 확산을 위한 드라마, 다큐 등의 방송콘텐츠 교류 확대(KBS월드-TV5Monde)
- ③ 재난·對테러 정보의 신속한 공유 등 정보교류 협력 강화(YTN-France24)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한국과 프랑스의 방송사 간 MoU 체결을 계기로 방송 프로그램 교류 및 교차편성을 통해 방송사간 협력이 강화되고 나아가 양국 국민들의 상호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6월 3일(금) 최 위원장은 프랑스 시청각고등평의회와 양국 규제기관간의 정보 교환, 정책 및 기술 분야 협력, 양국 방송사의 상대국 진출 확대 지원 등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 이어 KBS(한국방송공사) 전진국 부사장과 함께 프랑스의 TV5Monde를 방문하여 한류 확산을 위한 방송콘텐츠 교류 확대를 위한 KBS 월드와 TV5Monde 간의 MoU 체결식에 동행하여 방송교류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끝.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공동선언’ 전문

우리 대한민국과 프랑스의 정상은 1886년 수교 이래 130년간 쌓아온 양국간 우의와 신뢰를 기념하고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 공동선언을 채택한다.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전쟁과 압제에 맞서 싸우고, 전쟁의 폐허에서 다시 일어난 경험을 공유하는 파트너이다. 대한민국은 6.25 전쟁 기간 중 프랑스군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프랑스는 반세기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대한민국의 괄목할만한 성취를 평가한다.

이제 우리 양국은 21세기 포괄적 동반자이자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로서 양국 국민과 지구촌의 행복을 위한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고자 양자,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2015년 11월 채택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을 바탕으로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 양국은 모든 분야에 있어 전략적인 대화를 강화할 것이며, 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2015-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행사는 양국 국민들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양국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 양국은 항공, 원자력, 교통,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제 교류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한-EU 자유무역협정의 범주 내에서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국제기술 규범을 우선시함으로써 양측간 교역과 투자가 상호 호혜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 및 '문화융성' 정책과 프랑스의 '신산업 정책'간 상호 보완성에 주목하면서, 우리 양국은 최첨단 과학·기술과 우수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창조경제의 발전을 위한 협력을 장려해 나갈 것이다.

우리 양국은 신산업, 창업기업, 과학·기술 연구, 정보통신, 문화·창조 산업 등 분야에서 창조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 양국은 문화, 스포츠 및 방송 교류 확대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과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양국간 상호 교류가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원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과 기업을 위한 전자정부 및 행정 혁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 양국은 미래 세대간 우의와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교육기관 및 대학간 파트너십과 학생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상대국 언어교육을 장려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양국 학계 및 민간 차원의 협력 네트워크 확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6.25 전쟁 기간 중 양국간 연대에 대한 기억이 미래세대간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주는 요소로서 젊은 세대에 계승되도록 양국의 담당 행정기관과 박물관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 양국은 국제안보·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일련의 탄도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해 가장 강력히 규탄하면서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 및 EU 제재조치 강화 등을 통해 단호히 대응하는 데 있어 견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도록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우리 양국은 북한이 현존하는 모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하고, 모든 국제의무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진행상황과 국제사회가 결정한 대북제재의 이행에 대하여 보다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또한, 북한의 인권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프랑스는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노력을 평가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기본적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 그리고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 양국은 국제위기의 해결을 촉진하고, 테러리즘, 핵확산 등 글로벌 위협에 맞서 자유, 권리의 평등, 그리고 인간 존엄을 위해 함께 행동할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양국은 군당국간 대화를 촉진하고 방위산업 분야 파트너십을 장려하는 등 국방·안보 분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확인한다.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 협정'이 채택된 것을 환영하며 이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비준하고자 한다. 우리 양국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노력을 빠른 속도로 강화하고 전세계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 양국은 기후변화, 개발원조, 인권 증진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국제금융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20개국(G20) 차원의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끝.